

건설 (비중확대)

건설: 녹록지 않았던 해외 수주

16년 해외 수주는 플랜트 부진 기조 속에 이란 수주 재개, AIB 출범으로 인프라 부문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건설업종 비중확대 의견은 유지하나, 수주 부진과 해외 비용 이슈 우려로 단기적인 주가 모멘텀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15년 해외 수주 부진: 1) 중동 플랜트 감소 2) 非중동 인프라 증가로 요약

- 15년, 국내 건설사의 해외 수주 금액은 총 461억 달러로 전년대비 30% 감소 [그림 1]
: 중동 165억 달러 (-47%, y-y) / 非중동 296억 달러 (-15%, y-y) [그림 2]
- 전체 해외수주 대비 중동 플랜트 수주 비중은 약 23%로 10년래 최저 수준 [그림 3]. 유가 하락에 따른 발주처 재정 악화 + 발주 Project 축소, 지연이 주요 요인
- 非중동 수주 역시 플랜트 부문은 감소했으나, 인프라 부문 증가로 감소분 일부 축소 [그림 4]

녹록지 않은 중동, 16년 해외수주 역시 전년도와 유사한 흐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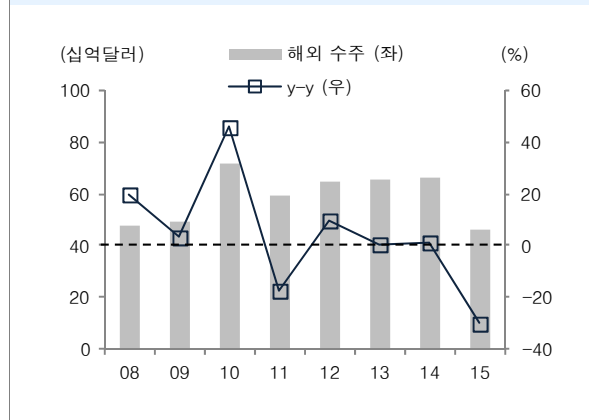
- 사우디와 이란 관계 악화를 비롯, 유가의 추세적 상승에 대한 확신 부족으로 '16년 플랜트 수주 회복 역시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 다만, 핵 제재 완화에 따른 이란 발주 재개 가능성은 플랜트 수주 환경 개선의 긍정적 요인
- 인프라 부문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출범, 건설자금 조달을 통한 역내 시장 진출 가능성 확대로 수주 증가 기조 이어갈 전망 [표 1]

해외 수주부진+비용 이슈 우려로 단기적인 주가 모멘텀은 크지 않을 전망

- 외형 축소 우려에도 불구하고, 1) 주택 분양물량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 2) 저수익 Project 준공에 따른 해외 마진을 회복 3) 역사적 저점의 Valuation을 근거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건설업종 비중확대 의견 유지
- 다만, 금융위 '수주산업 회계건전성 제고방안' 발표 이후 미청구공사를 포함한 주요 사항 정보 공개, 4분기 보수적 회계처리에 따른 비용 반영 유인 증가와 우려로 실적 확인 전까지 주가 모멘텀은 크지 않을 전망 (11/24, '3분기 업데이트 & 4분기 해외 Risk 재부각 가능성'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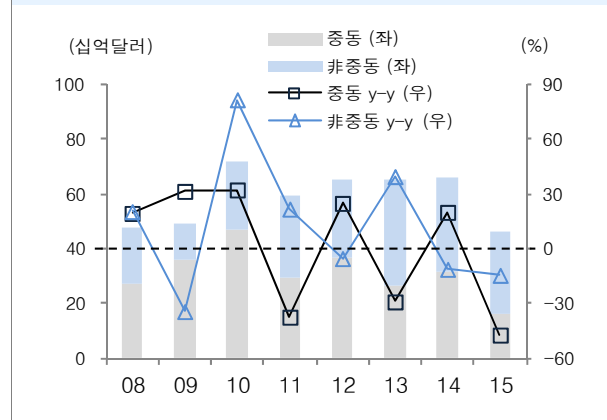
건설 | 건설: 녹리지 않았던 해외 수주

[그림 1] 연간 해외 수주 및 y-y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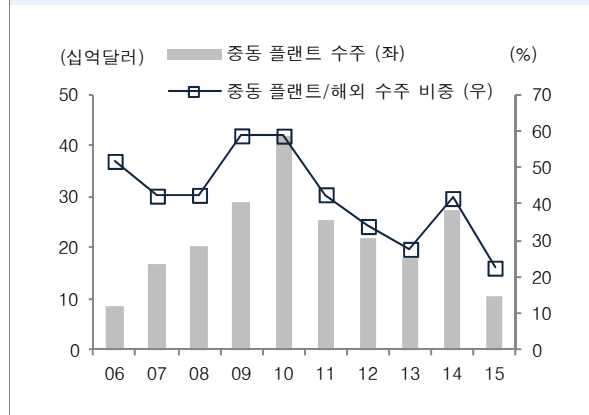
자료: 해외건설협회, LIG투자증권

[그림 2] 연간 중동, 非중동 수주 및 y-y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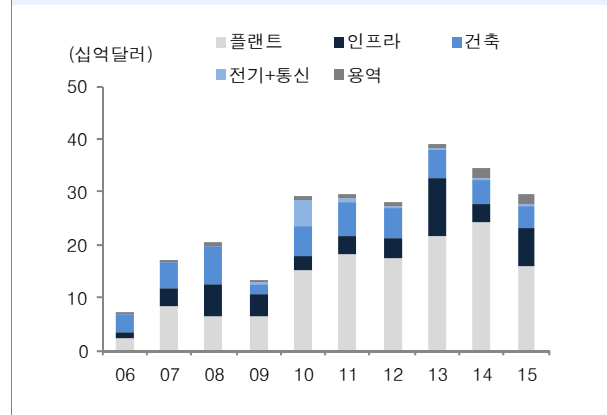
자료: 해외건설협회, LIG투자증권

[그림 3] 중동 플랜트 수주 및 해외 수주 대비 비중



자료: 해외건설협회, LIG투자증권

[그림 4] 연간 非중동 공종별 수주 실적 추이



자료: 해외건설협회, LIG투자증권

[표 1] AIB 자금 활용 가능 주요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예시

(단위: 십억달러)

국가	Project	규모	내용	현 단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거대 방조제(NCICD)	34.7	자카르타 북쪽에 17개 인공섬과 거대 방조제 건설	초기 인공 섬 간척 작업 개시, 거액의 재원 조달을 위한 방안 모색 중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수라바야 고속철도	15.0	인니 자바 섬을 횡단하는 860km 길이의 고속철 건설	1단계 자카르타-반둥 구간에 대해 중국-일본 기업 컨소시엄 간 수주 경쟁 중
베트남	하노이-호치민 고속철도	30.0	하노이-호치민 간 1,600km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1단계 420km 구간 발주 예정
ASEAN	ASEAN 전력망	-	회원국 간 전력망 연결로 무역거래 물류비 절감 및 경제성 제고	14개 커넥션 중 2개 완성, 나머지 프로젝트 실행 준비 중 (분야별 2020년 이후까지 지속)

자료: KOTRA, LIG투자증권

건설 | 건설: 녹록지 않았던 해외 수주

▶ Ratings System

구분	대상기간	투자의견	비고
[기업분석]	12개월	BUY(15% 초과) • HOLD(0%~15%) • REDUCE(0% 미만)	* 단,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최종분석 이전에는 긍정, 중립, 부정으로 표시할 수 있음.
[산업분석]	12개월	Overweight • Neutral • Underweight	
[투자비율]	12개월	매수(88.89%) • 매도(0%) • 중립(11.11%)	* 기준일 2015.12.31까지

▶ Complian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